

간호대학생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 및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김재희¹, 장숙량^{1*}, 지현진¹, 정경주¹, 서유진¹, 김진현¹, 최영순²
¹중앙대학교 간호학과, ²강릉영동대학교 간호학과

The effect of parental social support on the transition to college life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undergraduate college students

Jae-Hee Kim¹, Soong-nang Jang^{1*}, Hyun-Jin Ji¹, Gyung-Ju Jung¹, Yoo-Jin Seo¹,
Jin-Hyun Kim¹, Young-Soon Choi²

¹Dept.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²Dept. of Nursing, Yeong-Do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부모의 사회적지지에 따라 학년별 변화를 보고자 하였다. 서울과 지방의 4년제 간호대학생 542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부모 각각의 사회적 지지, 대학생활적응, 진로정체감을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의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과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활적응,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쳤다.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년, 전공만족도,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였다.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년, 전공만족도, 아버지의 정보적 지지였다. 간호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 교수들은 효율적인 학습법 개발과 더불어 부모의 면담을 통한 사회적지지의 필요성을 알리고 전공지식과 학습 방법에 대한 정보 공유, 간호학 선배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간호학 전공에 대한 인식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influential factors for the transition to college life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and what changes social support from parents brought about to them by academic year.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542 selected students who majored in nursing in four-year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and the provinces. A self-administered surve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social support from fathers and mothers, college adjustment and career identity.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made to determine how social support from parents affected the college adjustment and career identity of the nursing students. Social support from parents had an impact on their college adjustment and career identity. The factors that affected college adjustment were academic year, satisfaction level with major and emotional support from mothers, and the factors that impacted on career identity were academic year, satisfaction level with major and informative support from fathers. In order to facilitate the colleg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professors should try to develop efficient learning methods, meet with parents to inform them of the necessity of social support, share information on the major field of study and learning methods, and provide an opportunity for students to communicate with graduates or students who are years ahead of them in college so that they could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majoring in nursing.

Keywords : Career acceptance, Nursing student, Parental social support

이 논문은 2014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 Soong-nang Jang(Chung-Ang Univ.)

Tel: +82-10-2731-4886 email: soongnang@gmail.com

Received June 15, 2015

Revised (1st July 8, 2015, 2nd August 28, 2015, 3rd September 4, 2015)

Accepted September 11, 2015

Published September 30, 2015

1. 서론

1.1 연구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자신이 장래에 성취해야 할 진로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개발시킬 수 있을만큼 준비하는 단계 [1, 2]로 진로와 관련된 자기이해와 직업세계탐색 및 확립준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결정이 대학교에서 진로가 확립된다[3]. 하지만 많은 간호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고민이나 결정과 상관없이 고등학교 성적에 맞추거나 미래 취업정도를 확인하여 간호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4]. 간호대학에 입학한 후에는 전공분야에 대한 생소함과 많은 양의 학업 그리고 실습이라는 낯선환경에 대한 적응 스트레스로 타 학과 학생들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어 있다[5]. 간호대학생은 대학생활 중 많은 시간을 학업과 실습에 소요하고 있다. 간호학은 학과 특성상 인간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직면한 문제 해결 능력이 많이 요구되고 있다. 임상실습을 하면서 낯선 환경이 스트레스 상황으로, 불안과 긴장을 느끼게 하고 그에 따른 학과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6-10]. 과도한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면 학과생활과 대학생활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며 그에 따른 자아존중감까지 낮아져 자신의 진로정체감의 혼란 등으로 연결된다[11].

간호대학생의 뚜렷한 진로정체감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업하여 간호업무에 임하게 된다. 전문직간호사가 지녀야 하는 직업정체감이 없어 환자간호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지식 및 경험부족, 엄격한 행동 규범 등과 관련된 역할적응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더욱 많은 스트레스에 접하고 있다[12]. 이는 높은 직무스트레스와 낮은 직무만족도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부모의 지지가 영향을 미쳤고[13], 대학시기의 진로발달과 가족관련 변인을 분석한 29개의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대학생의 진로발달에는 부모의 정서적지지, 자율성지지, 격려, 온화한 태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14].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지각한 대학생들이 개인, 학업적 적응을 잘 할 수 있어 부모의 지지가 학생들로 하여금 능동적인 진로발달을 도모한다[14]. 이는 간호학과 특성상 졸업 후 취업으로 연결되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혼란 등을 겪게 될 수 있지만 부모의 지지가 자신의 적성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직업에 대한 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 소재 및 지방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의 가족응집성 및 자아분화수준과 대학생활 적응도 관계에서 가족응집성이 높을수록[15],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16]과 부산시 4개의 4년제 대학교 학생 38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17]에 부모지지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4년제 대학생 324명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적응과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력이 높게 나타났다[18]. 대전지역 6개의 4년제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학 신입생의 자아정체감과 대학생활 적응에서 자아정체감, 현재 전공에 대한 만족도, 고교시절 열등감, 부모와의 관계, 용돈사정 등의 변인이 대학생활적응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19].

간호 전문인으로서 뚜렷한 진로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한 채 간호업무에 임하게 된다면, 낮은 직업만족도와 높은 이직의도를 갖기 쉽기 때문에 임상에서의 간호사 수의 부족의 원인과악에 대한 진로정체감 연구가 시행되었다[20]. 간호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간호대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자기 확신정도는 향후 간호직 업무수행이나 직업적 발전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11]. 대학생활적응 및 진로정체감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되어 왔을 뿐, 임상실습이나 과중한 학업량 등이 반영된 간호대학 생활 적응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없다[21].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이 대학생활적응에 있어 가장 밀접한 영향을 주는 부모의 사회적 지지를 찾는 데에 의의가 있다. 간호대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직업적 발전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요인으로써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갖고 있는 의의를 찾고 과중한 스트레스에 따른 대학생활 부적응 및 진로정체감 형성에 간호대학생들에게 제공할만한 적절한 중재를 발전시키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간호대학생

의 대학생활적응과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상관관계를 보고자 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부모의 사회적 지지를 파악한다.
- 2) 대상자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3) 대상자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4) 대상자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 및 진로정체감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진로정체감에 대한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 소재 4년제와 지방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중인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4년 9월부터 11월까지 학년별 층화 편의표출하였다. 1학년(144명) 2학년(127명), 3학년(117명), 4학년(154명)으로 연구참여자에 불성실한 설문지 10부를 제외하여 연구에 분석이 용된 대상자 수는 총 542명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22]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에 필요한 연구 대상자 수를 구하기 위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80으로 설정(학년당 118명)하여 본 연구대상자 수가 충족되었다.

2.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 보호를 위하여 ‘중앙대학교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No. 041078-201408-HR-117-01)을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2.4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부모의 사회적지지 도구, 대학생활적응 도구, 진로정체감 도구이다.

2.4.1 부모의 사회적 지지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23] 박영신, 김의철이 부모의 사회적 지지로 수정보완한 도구[24]를사용하였다. 부모의 정서적(6문항) 정보적(6문항) 경제적 지원(6문항)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는 18개 문항으로 부와 모에 대한 지지의 정도를 각각 따로 산출한다. 각 문항은 자가 보고형 Likert 4점 척도이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4 이었다.

2.4.2 대학생활적응

본 연구는 대학생활에 있어서의 적응정도를 측정하는 도구[25] 대학생활적응 척도(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26]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대학생활적응 척도는 총 67문항의 자기 보고형 Likert 5점 척도이며, 네 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1 이었다.

2.4.3 진로정체감

본 연구는 진로상황검사(MVS, My Vocational Situation)[27]도구의 하위척도인 정체감척도 18문항을 한국대학생에 맞게 번안하고[28], 한국 간호대학생에 맞게 14문항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도구[29]를 사용하였다. 총 14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는 역환산하여 계산하였다(1점-매우 그렇다, 4점-전혀 그렇지 않다).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임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7 이었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program을 이용하여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의 부모의 사회적 지지, 대학생활적응, 진로정체감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 간호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부모의 사회적 지지, 대학생활적응, 진로정체감을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의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적응 및 진로정체감과 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의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과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

다. 사후검증으로는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은 남학생 13.7%, 여학생 86.3%로 여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학년별로는 4학년이 28.4%, 1학년 26.6%, 2학년 23.4%, 3학년 21.6%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19~22세가 83.4%로 대부분 이었다. 가족 중 간호사가 없는 학생이 81.2%로 많았다. 희망 진로는 병원취업이 80.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542)

General Characteristics		N	%
Sex	Male	74	13.7
	Female	468	86.3
Grade	Freshman	144	26.6
	Sophomore	127	23.4
	Junior	117	21.6
	Senior	154	28.4
Age	below 19	126	23.2
	20	126	23.2
	21	101	18.6
	22	101	18.6
Nurse in the Family	Yes	102	18.8
	No	440	81.2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Yes	289	53.3
	No	253	46.7
Motivation to select Nursing as major	High Grades	43	7.9
	Recommended by parents or other people	112	20.7
	High employment rate	123	22.7
	Aptitude and Interest	166	30.6
	Professionalism	64	11.8
	etc.	34	6.3
Desired Career	Employment in Hospital	435	80.3
	Enrollment in graduate school	9	1.7
	Health Teacher	15	2.8
	Industry Nurses	8	1.5
	Nusing Officers	29	5.4
	etc.	46	8.5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님의 사회적 지지, 대학생활적응, 진로정체감

학년에 따라 대학생활적응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F=8.73, p <.000). Duncan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4학년이 타학년들보다 대학생활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중 간호사가 있는 학생은 어머니의 사회

적 지지에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64, p <.01).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대학생활적응(F=73.03, p <.000), 진로정체감(F=87.93, p <.000)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실습경험이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아버지의 사회적 지지(t=2.10, p <.04)와 대학생활적응(t=2.29, p <.02)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able 2).

Table 2. Social Support of Parents Student Transition, Career Acceptance (N=542)

General	Father			Mother			
	M	t(F)	p	M	t(F)	p	
Sex	M	3.26	1.22	0.226	3.45	0.31	0.754
	F	3.17			3.43		
Grade	1	3.14	(1.08)	0.359	3.40	(0.51)	0.679
	2	3.14			3.43		
	3	3.19			3.47		
	4	3.24			3.45		
Nurse in the Family	Yes	3.18	0.05	0.961	3.54	2.64	0.009**
	No	3.18			3.41		
Major Satisfaction	S	3.22	(2.69)	0.069	3.45	(0.32)	0.724
	U	3.16			3.42		
	D	3.02			3.40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Yes	3.23	2.10	0.036*	3.47	1.75	0.080
	No	3.12			3.40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4점 중 아버지는 경제적 지지(3.46점), 어머니는 정서적 지지(3.51점)가 높았다(Table 3).

Table 3. Social Support of Parents, College Student Transition, Career Acceptance (N=542)

Social Support (Mean)	Transition to college (Mean)		Career acceptance (Mean)	
	F	M		
Emotional	3.08	3.51	Academic	3.01
			social	3.42
Informative	3.07	3.30	Personal emotional	3.07
			College environment	3.61
Economic	3.46	3.50	Total	3.47
			Total	3.18

진로정체감은 4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2.53으로, 간호대학생들은 진로정체감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직에 대해 내가 어떤 종류의 진로정보를 탐색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3.05점)’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나는 현재 간호학에 대한 나의 흥미가 시간에 지남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2.75 점)’, ‘나는 내가 고려할 수 있는 직업이 현재 선택한 진로와 다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2.65점)’, ‘나는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이 간호직인지 확신할 수 없다(2.61 점)’ 순으로 나타났다.

3.3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적응 및 진로정체감과의 상관관계

아버지의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활적응($r=.173$, $p<.000$)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 중 정서적 지지($r=.127$, $p<.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활적응($r=.147$,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어머니의 정서적($r=.173$, $p<.000$), 정보적 지지($r=.134$, $p<.002$)는 진로정체감에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정체감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154$, $p<.000$)(Table 4).

Table 4. Social Cor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of Parents and Transition to college life and Career Acceptance (N=542)

Social Support	Transition to college	Career acceptance
Father	0.173*** ($<.001$)	0.115** (0.008)
Mother	0.147** ($<.001$)	0.154*** ($<.001$)

* $p<.05$, ** $p<.01$, *** $p<.001$

3.4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과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 특성 중 대학생활적응에는 학년과 ($p<.01$)과 간호학 전공 만족도($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Model 1). 음 일반적 특성과 독립 변수인 부모의 사회적 지지를 확인하였다. 학년($p<.01$)과 간호학 전공 만족도($p<.001$), 부모의 사회적 지지 중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p<.0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Model 2).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은 학년, 간호학 전공 만족도,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Model 1은 약 23.9%($R^2=0.239$), Model 2는 약 26.6%($R^2=0.266$)의 설명력을 지녔다(Table 5).

Table 5.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ransition to college life (N=542)

			Transition to college			
			Model I		Model II	
			t	p	t	p
General Characteristics	Sex		1.14	0.255	0.98	0.328
	Grade		3.29	$<.001^{**}$	3.21	$<.001^{**}$
	Major satisfaction		12.29	$<.001^{***}$	11.92	$<.001^{***}$
Social Support	Mother	emotional	-	-	2.39	0.017 [†]
constant			14.852	$<.001^{***}$	6.44	$<.001^{***}$
R^2			0.239		0.266	
ΔR^2					0.027	
F(p)			33.602 ($<.001^{***}$)		17.440 ($<.001^{***}$)	
$\Delta F(p)$			33.602 ($<.001^{***}$)		3.262 (0.004 ^{**})	

* $p<.05$, ** $p<.01$, *** $p<.001$

학년($p<.05$)과 간호학 전공 만족도($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고(Model 2), 부모의 사회적 지지 중 아버지의 정보적 지지($p<.0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은 학년이 높을수록, 간호학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정보적 지지가 낮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Model 1은 약 27.2%($R^2=0.272$), Model 2는 약 30.0%($R^2=0.300$)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Table 6).

Table 6.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Career Acceptance (N=542)

			Career acceptance			
			Model I		Model II	
			t	p	t	p
General Characteristics	Sex		0.23	0.820	0.19	0.853
	Grade		1.98	0.048 [†]	2.17	0.031 [†]
	Major satisfaction		13.99	$<.001^{***}$	14.05	$<.001^{***}$
Social Support	Father	informative	-	-	-2.17	0.031 [†]
constant			192.36	$<.001^{***}$	114.54	$<.001^{***}$
R^2			0.272		0.300	
ΔR^2					0.028	
F(p)			40.110($<.001$)		20.661($<.001$)	
$\Delta F(p)$			40.110($<.001$)		3.513(0.002 ^{**})	

* $p<.05$, ** $p<.01$, *** $p<.001$

3.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부모의 사회

적 지지를 파악하고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진로정체감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 부모의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사회적지지 점수는 3.18 ± 0.58 이며, 어머니의 사회적지지 점수는 3.44 ± 0.49 로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 중 경제적 지지 점수가 3.46 ± 0.66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는 사회적지지 하위영역 중 정서적 지지가 3.51 ± 0.58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력에 대한 부분은 아버지가 담당하고, 정서적인 부분은 어머니가 많이 담당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부모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대학생활적응과 진로정체감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활적응($r=173, p<000$)에 유의한 결과를 보이며 아버지의 지지가 많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활적응($r=147, p<001$)과 진로정체감($r=154, p<000$)에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간호학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결과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부모지지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연구에서 부모의 지지가 높은 청소년들은 부모지지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보다 학교의 적응력이 높고, 스트레스의 수준이 낮다고 보고하여[30] 본 연구결과인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점수가 높다는 결과와 동일한 결과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반적 특성 중 대학생활적응에는 3.47 ± 0.63 로 나타났으며, 3년제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3.0점[31], 또다른 연구보다[32] 높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년제 학제가 대학생활적응에 더 유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학생활적응에 정(+)의 영향을 보여 주어($p<0.1$),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대학생활적응 영역 중 하위영역 중 가장 낮은 영역은 ‘학업’이었다. 간호대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 대학생에 비해 간호학과 신입생의 학업관련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한 연구[33]의 결과를 지지하며, 대학생활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학업증진 방안으로 교수, 선배, 친구, 부모 등의 다양한 지지그룹의 활용을 제시하였다[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은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73.03, p<0.000$), 진로정체감($F=87.93, p<0.000$)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진로정체감이란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자아정체감으로서, 자신의 목표, 흥미, 그리고 재능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명확하고 안정된 상을 의미한다[34]. 본 연구에서의 진로정체감은 4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2.53으로 나타났으며 간호대학생 2,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2.27점 \pm 0.43점[20]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진로정체감은 학년($p<0.05$)과 간호학 전공만족도($p<0.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이 학년이 올라 갈수록, 간호학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볼 수 있다.

학년에 따른 진로정체감은 일반학과 4년제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조사한 연구[3]에서와 같이 저학년보다 고학년이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나. 연구결과가 이를 지지하였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정보에 대한 탐색, 간호학에 대한 흥미도, 직업선택에 대한 고려 등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은 타학과 학생들에 비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정체감이 낮다고 보고한 연구결과[34]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각각의 간호학과 특성과 실습에서 느끼는 학생들의 지지도가 다름에서 오는 차이일 수 있어 지역 간 비교가 필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진로정체감과 전공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8793, p<0.000$),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도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F=7303, p<0.000$). 이는 진로정체감과 전공만족도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력 있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35]와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력 있는 관련요인[32]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 결과를 통해 진로정체감과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잘 적응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에 간호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 교수들은 효율적인 학습법 개발과 더불어 간호학과 학생 상담 시 부모나 가족의 상담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족의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의 긍정적 요소임을 알고 부모의 적극적인 사회적지지의 중요성을

알릴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공지식과 학습 방법에 대한 정보 공유, 간호학과 선배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간호학 전공에 대한 인식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Dayton, C.W., *The young person's job search: Insights from a stud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4): p. 321. 1981.
- [2] Drier, H.N., *Career information for youth in transition: The need, systems, and models*.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29(2): p. 135-143. 1980.
DOI: <http://dx.doi.org/10.1002/j.2164-585X.1980.tb01032.x>
- [3] S.K. Lee, *Korean college students vocation identity: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demographic and career-related variable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19(1): p. 141-154. 2006.
- [4] J.J. Suk, J.M. Jo, and Y.I. Young,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 p. 27-36. 2014.
- [5] S.J. Whang,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12(2): p. 205-213. 2006.
- [6] N.Y. Yang, S.Y. Moon, *The Impact of Health Status,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Social Problem Ability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19(1): p. 33-42. 2013.
- [7] Clement, M., et al., *Health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A longitudinal study*. Th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41(6): p. 257-265. 2002.
- [8] Ju, S.Y., C.E. Young, and S.Y. A,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Depress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tress Medicine, 18(4): p. 345-351. 2010.
- [9] K.S. Han, G.M. Kim, *Comparison to self esteem, family adaptation,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symptoms of stress between nursing and other major university women stud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6(1): p. 78-84. 2007.
- [10] I.S. Park, R. Kim, and M.H. Park,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Health Promoting Behaviors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3(2): p. 203-211. 2007.
- [11] Cho, H. and G.Y. Lee, *Self Esteem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public Health Nursing, 20(2): p. 163-173. 2006.
- [12] H.S. Park, Y.J. Bae, and S.Y. Jung, *A Study on Self-esteem, Self-efficacy, Coping Methods, and the Academic and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1(4): p. 621-631. 2002.
- [13] S.G. Park, Y.H. Lee, *A study on family variables and personal variables affecting the career decision level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4(1): p. 141-160. 2002.
- [14] Whiston, S.C. and B.K. Keller, *The influences of the family of origin on career development a review and analysi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2(4): p. 493-568. 2004.
DOI: <http://dx.doi.org/10.1177/0011000004265660>
- [15] Y.H. Park,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Family Cohesion Self-differentiation and Clooege Adjustment*, in Dept. of Educational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2001.
- [16] J.H. Kim,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on Their School Life Adaptation*, in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Paichai University: Daejeon. p. 55. 2012.
- [17] J.U. Kim, J.H. Kim,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Attachment, Social Support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Society, 13(9): p. 248-259. 2013.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3.13.09.248>
- [18] M.J. Oh,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career identity and meaning in life on adjustment to college*, in Department of Counseling Educ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2014.
- [19] Yun, Y.G., *A Study on Affecting Factors of University Freshmen's Ego-identity and College Adjustment*, i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Mokwon University: Daejeon. 2001.
- [20] K.N. Kwon, E.H. Choi, *Factors affecting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4(1): p. 19-28. 2010.
- [21] Y.K. Kwag, *Effect of Self-Esteem,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5): p. 2178-2186.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5.2178>

- [22] Faul, F., et al., *G* 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2): p. 175-191. 2007.
DOI: <http://dx.doi.org/10.3758/BF03193146>
- [23] J.W. Park,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The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Yonsei University. 1985.
- [24] Y.S. park, U.C. Kim, *Parent-child relationships affect change on youth*. Korean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8(2): p. 109-147. 2000.
- [25] Baker, R.W. and B. Siryk,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 Los Angeles, CA: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1989.
- [26] H.J. Won, C.J. Hoon. *The Effect of Perfectionism and Evaluative Threat on the Performance of Task*. in *Journal of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orkshop*. 1992.
- [27] Holland, J.L., et al., *My vocational situation*. :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1980.
- [28] B.W. Kim, K.H. Kim,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9(1): p. 331-333. 1997.
- [29] Kwon, Y.H. and C.N. Kim, *Effects of a Ready Planned Self Growth Program through MBTI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Career Ident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13(2): p. 216-229. 2002.
- [30] Holahan, C.J. and R.H. Moos, *Personality, coping, and family resources in stress resistance: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2): p. 389-395. 1986.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51.2.389>
- [31] B.N. Park, J.S. Park, and J.R. Lee, *Factors affecting adaptation to school life among nursing junior college freshm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Information and Health Statistics, 34(2): p. 153-164. 2009.
- [32] H.J Chung, H.I. Chung, *Effects of self-esteem,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support on college adjustment in first year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1(3): p. 188-196. 2012.
DOI: <http://dx.doi.org/10.12934/jkpmhn.2012.21.3.188>
- [33] J.A. Park, E.K. Lee, *Influence of ego resilience and stress coping styles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7(3): p. 267-276. 2011.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1.17.3.267>
- [34] N.K. Kim, *Patterns of career choice and career identity of students in nursing*, in *Department of Nursing*. A-ju University: Seoul. 2012.
- [35] I.Y. Cho, *The Relationship of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Adaptation of Nursing Freshme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5): p. 2937-2945.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5.2937>

김 재 희(Jae-Hee Kim)

[종신회원]



- 2014년 3월 ~ 현재 : 중앙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과정 중)
- 2015년 7월 ~ 현재 : 강원관광대학교 간호과 교수

<관심분야>
의료취약계층

장 속 량(Soong-Nang Jang)

[정회원]



- 2010년 3월 ~ 현재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2년 9월 ~ 현재 : 중앙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소장

<관심분야>
건강불평등, 노인

지 현 진(Hyun-Jin Ji)

[준회원]



•2012년 3월 ~ 현재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학부생

<관심분야>
간호학

김 진 현(Hyun-Jin Ji)

[준회원]



•2012년 3월 ~ 현재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학부생

<관심분야>
간호학

정 경 주(Hyun-Jin Ji)

[준회원]



•2012년 3월 ~ 현재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학부생

<관심분야>
간호학

최 영 순(Young-Soon Choi)

[정회원]



•2012년 2월 : 강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
•2014년 3월 ~ 현재 : 강릉영동대
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간호학, 보건학

서 유 진(Hyun-Jin Ji)

[준회원]



•2012년 3월 ~ 현재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학부생

<관심분야>
간호학